

14일령 계군모습

## 첫 육계 사육, '306' 결실을 맺다



한재필 대표  
외룡농장(臥龍農場)

누구나 꿈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많은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리라. 지난달, 꿈에도 그리던 육계 닭을 처음 키워서 첫 출하를 하고 난 필자 마음은 참으로 행복 그 자체였다. 첫 입추 때의 감동 역시 컸었지만 첫 출하를 하고나니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20~30년 육계 사육을 해 오신 선배님들이 볼 때는 코웃음 칠 일이고 “이제 한번 키워보고 무슨 호들갑이냐?” 하시겠지만.

그러나 필자는 좀 다르다.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땀과 노력으로 실천하며 이제 작은 결실을 맺은 지금의 필자 마음은 참으로 행복하고 필자 스스로 대견하고 약간의 자신감까지도 생겼다. 아버지가 충분히 이루지 못한 양계의 꿈을 나는 한번 이루어 보고자 목표가 있어 앞으로 오래도록 필자는 이 육계사업을 할 것이고, 먼 훗날 오늘의 첫 작품에서 느꼈던 초심을 잃

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뭔가 작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 부족한 글이지만 원고를 쓰고자 한다.

이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님들에게도 선택의 길에서 필자의 글이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한다.

### 대학 입학 목적

필자는 한국농수산대학(구 농업대학) 축산과 양계반을 2010년 3월에 11기로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를 하게 되었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생활하며 도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의 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도시의 삶은 어릴 적 막연히 상상하고 지향하던 그런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그 중에 어린 필자가 느낀 가장 큰 실망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을 억지로 다닌다는 것과 회사 혹은 직장 상사를 욕하며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필자는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원하는 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때 당시 아버지가 임대를 주고 있던 양계장에서 닭을 키워보자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막연히 아무 지식도 없이 닭을 키우다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양계업에 대하여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추천으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국립농수산대학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 첫 사육의 기대감

학교에서는 1학년 기초과정, 2학년 국내·외 선진 축산농가 실습, 3학년 전공 심화과정을 거치고 졸업하여 드디어 농장 입추 준비를 했다.

사업방법은 필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계열화 사업으로 선택했고 다행이 우리나라의 육계 계열화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매우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안심이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인연이 되었던 유대표의 자문을 얻어 부여에 있는 Y사와 계약을 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18일 39,800수를 첫 입추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자신의 첫 사업이 잘못되길 바라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

필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첫 파스에 너무 큰 성과를 내면 사람이 자만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너무 큰 실패를 하면 앞으로 닭을 사육하면서 결정하게 될 하나하나의 선택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에 끌려가게 되어 결국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 제대로 된 양계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내 생애 첫 파스의 목표는 계속 이어질 사육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정도의 성적을 내심 바라고 있었다.



와룡농장 전경

## 사육과정과 현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기본적인 사양관리는 한국계육협회에서 발간한 ‘육계 사양관리 매뉴얼’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필자의 농장에 적용시키면서 응용하는 사양관리는 (주)계흥 유재석 대표가 쓴 “新육계사양관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화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째는 계열회사에서 공급하는 원자재인 병아리의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물론 시장 여건과 종계장의 생산성이 하루 아침에 변화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사육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병아리 품질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리라 느꼈다. 다행히 회사에서 적절한 크레임 처리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품질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두 번째는 계열회사에서 공급하는 면세유 기준 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장에서는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물론 계사 단열 수준에 따라 지급수준이 남는 농장도 있겠지만 평균 수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30% 이상 더

농장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입추당시의 세심한 병아리 정보제공이나 담당자의 적극적인 사양관리 안내, 출하 때 상처반 이용 등 계열화를 통해 형성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육능력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장 입장에서는 계열회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 사육 후기

누가 “육계는 일주일만 고생하면 나머지는 닭이 알아서 크다”고 했는가?

지금 생각하니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생각한 내가 턱없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시절 종계장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종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으나 종계에 비교해서 육계는 사양관리를 하면서 질병적 측면에서 치료의 개념은 없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다. 폐사계를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하여 세 번을 검사했지만 그때마다 병명 및 폐사원인 등이 각기 다르게 나

타나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육계사육은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사업이라 느꼈고 세심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닭은 주인 발소리 듣고 큰다는 말을 절로 실감했다.

주위 많은 분들의 도움과 맘을 홀린 노력 때문인지 다행스럽게도 성공적인 첫 출하를 하게 되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특히 부족한 필자를 믿고 뒤에서 묵묵히 조언하며 응원해 주신 아버지께 더욱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필자 자신도 조금은 정신적으로 성숙된 느낌이 들었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나 자신이 목표로 하는 꿈을 하나하나 천천히 이루어 가리라 다짐하면서 향후 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의 이 초심을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육계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보련다. 

〈표 1〉 첫 사육성적

입추일	2011-02-18	출하일	2011-03-19
입추수수	39,800수	출하수수	38,350수
출하율	96.4%	출하총중량	55,640kg
평균중량	1.45kg	총사료량	87,840kg
사료요구율	1.57	일령	29일
생산지수(PI)	306		